'5년 표류' 광주 구간 경계조정 다시 '시동'

23일 민선8기 첫 논의 테이블 선거구 정상화・불균형 해소 정부 심의・주민 반발 해법 주목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광주지역 구간 경계조 정이 민선8기 들어 다시 논의된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서구 서창 한옥문화관에서 행정구역(구간 경계 조정) 개편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선8기 들어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머 리를 맞대는 첫 회의로, 강기정 시장과 광주 지 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교육

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부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다 2017년 1월 구 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됐으나 반대 여론이 일 면서 이듬해 11월 최종보고서가 완성되고도 5 로,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10만2,936명)와 북 년째 중단 상태다. 민선7기에 기획단을 꾸려 논 의가 재개됐고, 2020년 11월 북구 6개 동을 동 구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 을 골자로 한 최종안이 확정됐으나, 또 다른 반 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최종안인 소위 '중폭안' 으로, 북구 다선거구 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 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 · 2동을 북구로 편 입시키는 안이다.

구간 경계조정은 자치구간 인구·재정·복지

불균형을 조정하고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대안 을 마련하는 등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도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광주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144만6,012명으 구(42만6,329명)의 격차는 4배에 이르고, 예 산도 동구는 2,977억원에 그친 반면 북구, 광산 구는 각각 8,026억원과 7,043억원으로 큰 격차 를 보이고 있다.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남구에 살면서도 총선 에서는 동구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동남갑· 을' 사례에 비춰 기형적 선거구를 정상화하는 계기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건은 주민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다. 실제 광산구 첨단1·2동, 북구 풍향동, 문화

동, 석곡동, 두암1·2·3동 등 광산구와 북구 일 부 지역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 당사자 간 합의와 구의회 심의를 거쳐 광주시의회가 최종안을 의결하더라도 행정안 전부 심의에만 통상 6개월가량 소요돼 2024년 4월 총선전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장 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달 18일 광주시장 당선인과의 예산정책 간 담회에서 "구간 경계조정은 계획된 도시 발전 을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선거가 없 는 시기에 매듭을 지을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 자"며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대 소장 '삼한시귀감' 광주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전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삼한시귀감' 이 20일 광주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사진〉

'삼한시귀감'은 고려말기의 최해(1287-1340)가 평점을 하고, 조운흘(1332-1404)이 정선한 신라・고려시대 문인들의 시선집으로 우 리나라에서 온전히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평점 서라할수있다.

'삼한시귀감'의 첫 간행시기는 명확하지는 않 으나, 최항(1409~1474)의 '태허정집'에 1463 년(세조 9) 전라도 관찰사 원효원이 보내준 '삼 한시귀감'을 언급하고 있어 초간본이 1463년 이 전에 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또 1566년(명종 21) 전라도 순천부에서 간행된 중간본이 고려대 학교 도서관,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전남대학교 소장본은 목판의 형태와 인쇄상 태, 오자 수정 등의 맥락에서 초간본일 가능성 이 매우 높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어 문화재청에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재 전문 가 조사와 30일 이상 시 지정문화재 지정심의 예고를 했다. 이후 광주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조 사 및 지정심의 예고 등의 결과를 검토해 '삼한 시귀감'의 시 지정문화재 지정을 결정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 서구는 20일 오전 광주제2순환도로㈜로부터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 /서구 제공

전남 식품, 미국 캘리포니아서 인기몰이

와인축제 참여 전통주 등 홍보

전남도가 미국 캘리포니아 최고 음식축제인 '캘리포니아 와인축제'에서 전통주와 고품격 스낵류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 방문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20일 "최근 미국 캘리 포니아의 산타바바라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와 인축제'에서 현지 요식업계 관계자와 인플루언 서 등을 대상으로 전남산 우수 식품을 홍보했 다"고 밝혔다.

와인축제에는 현지 고급 레스토랑 및 식품 유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672 상속한정승인

(590510-1 * * * * * * *,2022년 4월 7일 사망)

최후주소: 광주 북구 군왕로 207번길 20, 101동 1013호

법정상속인 최영덕의 피상속인 망 최숭락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 하여서 한 2022년

7월 6일자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2022년 7월 18일자로 수리 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 분 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 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한 정 상 속 인 : 최영덕 (010-2918-2244)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건시대 선도자

두암그린파크 105동 1504호

채권신고장소 : 광주 동구 밤실로 150

상 속 인: 최영덕

피상속인: 망최숭락

통 관계자, 주류업계 전문가, 누리 소통망 (SNS) 활동가 등 4,000여명이 참가했다.

전남도미주사무소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LA지사와 함께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유 일하게 홍보관을 운영했다.

축제 기간 한국인 최초 마스터 소믈리에 김경 문씨가 전통술 소개코너에서 광양산 매실주와 유자주스(고흥 에덴식품) 등을 활용한 칵테일 을 만들어 와인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LA한 인타운에서 현대식 한식 붐을 일으키는 '인 하 스피탈리티 그룹'의 민경빈 수석셰프는 한국 막걸리와 어울리는 김치전 등 퓨전요리를 선보

여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와 함께 미국 코스트코와 아마존에서 현지 인에게 인기가 있는 오징어스낵(여수 아라움), 김자반(목포 선일물산) 등 고품격 스낵류를 홍 보하면서, 와인과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안주 시 식행사를 진행해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 농수산식 품이 한남체인 등에 입점한 8개 상설 판매장과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많 은사랑을 받고 있다"며 "해외 주류 식품시장을 공략하도록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하겠 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공모 민선8기 첫 기관장 인선 주목

광주시 4대 공기업 중 하나인 환경공단 이사 장 공모 절차가 시작돼 민선 8기 출범 후 첫 산 하기관장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환경공단 임원추 천위원회는 최근 이사장 모집 관련 사항을 공고

원서 접수일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 지로 서류와 면접 심사 후 후보로 추천되면 시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강기정 시장이 최종 임 명한다.

광주 환경공단은 김강열 전 이사장 임기가 만 료된 지난 3월 이후 2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이용섭전 시장은 환경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 난 1월부터 공석인 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민선 8기로 넘겼다.

관광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들을 먼저 선임한 뒤 대표 이 사를 공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내부 개방형 직위, 정무직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개방형 직위인 민주인권평화국장(3급 개방형)을 공모하기로 하고 오는 25~29일 원서 를 접수하다.

정무 정책, 시민참여 정책을 담당할 5급 임기 제 공무원도 1명씩 선발돼 공식 임명을 앞두고 /길용현 기자

광주형 복합쇼핑몰 논란 확산

▶1면에서 계속

복합쇼핑몰광주상인대책위는 "지난 18일 제 출된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유치 계획안은 시민 적 합의나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과 광주시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일방통행식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 을 멈추고, 지역 상인과의 창구부터 만들어 피 해가 불가피한 지역 상인의 목소리부터 청취해 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역시 "복합쇼핑몰을 핑계로 정부와 줄다리기 하지 말고 지하철 2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와 싸우라"며 강 시장의 복합쇼핑몰 유치 전략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12월 복합쇼핑몰 필요성을 발표한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는 상생과 연결의 가치를 위해 지원하고, 민간은 최고 중 의 최고시설을 투자, 광주시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라는 3대 축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정부·자본·행정의 3박자를 통한 국가 지원형 복합쇼핑몰은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의 완성이다"면서 "자본은 투자할 준 비를 하고 있고, 행정은 준비가 끝났다. 이제 정 부 지원만 남았다"며 유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 냈다.



광고 구인 · 구직 · 모집 · 매매 · 부동산 · 공고 · 영업 · 분양 · 모임 광고국 062) 720-1016, 1017 아내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장흥군 정남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민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 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발전사업의 명칭
- 장흥군 정남진 해상풍력발전소
- 나. 발전사업의 위치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방조제 해상 일원 다. 발전사업의 면적 : 2.34 ㎢
- 라.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1. 예정 시설용량 : 96MW (6MW × 16기)
 - 2. 사업개시 예정일 : 2026년 7월
 -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공고일로부터 7일간, 이메일 접수



71



